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YS가 대통령 당선자였을 때, 재야 민주 인사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한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회담사항을 얘기하는 가운데 참석자 중 한 분이 당시 논의가 분분하던 일본 중군위안부 문제를 꺼냈다. 그분의 말인즉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에 보상금을 내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화대를 연상시켜 괜히 찻점하다.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은 마땅히 우리 스스로 보살펴야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들한테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YS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YS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며칠 뒤, 3·1절을 앞두고 나를 불러 그때의 얘기 내용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정부로 하여금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케 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중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한·일 양국 언론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고, 일본의 한 신문은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도덕적으로 열

세에 물리고 있다고 썼다. 그 얼마 뒤, 귀국한 주일 한국대사로부터 나는 자신의 외교관 생활 중 특히 일본에게 그렇게 떳떳해 본 적이 없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8월은 광복과 건국의 달이다. 굳이 독

일본에 대한 몽상(夢想)

도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더라도 8월은 한번쯤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게 한다. 친일문학론을 쓴 임종국은 침략과 수탈은 그것을 당한 민족에게도 치욕이지만, 그것을 행한 민족에게도 역사적 수치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은 참으로 소우시심(羞惡之心)이 없는 나라이다.

터키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터키 국민들이 한국인들을 형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반갑게 대해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몽골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NA가 비슷하고, 같은

우랄알타이어계의 민족이라고 이처럼 지극한 친애(親愛)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DNA에서도 더 가깝고 지리적으로 수천 년을 이웃해 온 일본에서는 그런 친애의 감정이 발현되지 않는다. 일본은 문명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 엄연한 역사적 관계마저도 부정하고 싶어 한다.

일본의 학교 교과서는 지난 날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수탈의 만행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 문제와 신사 참배, 그리고 독도 영유

권 문제로 벌어지는 한·일간의 마찰은 이제 연례행사라 되어버렸다. 큰 원칙에 따라 항심(恒心)에 한결같은 절음을 걸어다 처해야 하는데, 한국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어설피기 짝이 없다. 밤비처럼 뚝뚝가 그것이 식어버리면 그만이다. 아마 이번에도 필경은 그렇게 끝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영원히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없는 사이인가. 한국과 일본은 역사 속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하거나 공동의 협력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 2002년의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함께 해야 할 일, 보람 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

일본은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에 예너지 효율과 환경기술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한류에서 보듯이 새로운 문명, 흥익문명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비(非)서양의 한국과 일본이 세계문명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다. 세계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건 협력하는 가운데서 녹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

무엇이 한·일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가로막고 있는가. 역사문제가 언제나 발목을 잡고 있다. 피해자는 용서하고 원한을 잊을 수가 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국 주주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천황이 역사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21세기 큰 지도자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인가. 또는 문화작품이나 양국 국민간의 영적 교감으로 이 모든 역사의 찌꺼기를 거두어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나는 이런 몽상을 하고 있다. 8월에 꾸는 나의 백일몽은 나 하나만의 꿈으로 끝나야 하는가.

〈연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붕괴 위기의 쌀농사 이대로 방치할 건가

우리나라 쌀 농사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비료가격, 인건비, 농기계 값 등 생산비는 전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 쌀 농사가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쌀 농사에 주로 사용되는 비료 가격이 1년 새 2배 이상 급등했고 콤바인 등 농기계 임대료도 42.8% 올랐다. 여기에 날로 심화되는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건비는 30%가량 올랐음에도 일손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쌀 농사 환경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반면 쌀값은 지난 2005년 40kg 1가마당 4만4천200 원에서 지난해 4만7천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수지가 갈수록 악화되자 벼 농사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21년간 25.8%가 줄었다. 200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쌀 의무수

입에 따라 앞으로 2014년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전체 쌀소비량의 8%까지 수입해야 한다. 쌀 재배면적 감소의 가속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세계 5위의 곡물 수입대국이다. 곡물 자급률은 26.5%에 불과해 식량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곡물 수입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 농사마저 붕괴한다면 인건가 식량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최근 국제 곡물값 급등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는 '식량 자원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쌀 농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쌀 농사는 단순히 식량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토양유실 방지, 환경정화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은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등 쌀 농사 희생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기업 개혁 기대 못 미쳐 실망스럽다

정부가 어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305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된 14개 기관 등 319개 선진화 대상기관 가운데 우선 주공과 토공 등 41개 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의 뜻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에서 드러나듯 방만경영과 비리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를 약속했다.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에 개혁의 칼을 들이겠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으로 26곳을 선정했으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공적자금 투입기관 등 이미 민영화 일정이 공표됐거나 작업이 진행중인 공

업을 빼면 새로 선정된 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5월 말개로 예상했던 개혁안을 미뤄왔고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애매한 용어를 내밀었고 공기업 개혁의 주체도 청와대에서 정부 각 부처로 바뀌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퇴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어려운 작업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해당 기업의 반발 등으로 동무사미에 그쳤다. 새 정부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2차, 3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기업 개혁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기업에 대폭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은 비등하다. 해당 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의지가 퇴색하거나 추진력이 떨어져선 공기업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無等鼓

심산유곡이라면 모를까, 자본주의의 한가운데서 물질적 풍요를 접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쏟아지는 상품의 홍수 속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부터, 홈쇼핑과 길거리의 매장들, 백화점까지, 소비를 유혹하는 상품과 그에 대한 정보는 일부러 피하려고 눈을 감아도 귀를 통해서까지 파고든다. 구매욕을 억누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는 신용카드로는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 소비욕을 잘 해소해주고 있다.

한 때 한국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자주 끊어야 나라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의상이러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는 한국사회를 아예 '외상 권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때가 1999년 IMF 위기의 뒤를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진작에 나서던 시기에 경제당국자들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카드를 발급하는데 신용 능력에 대한 조사는 형식일뿐이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카드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신용카드를 남발한 것이 문제였다. 카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고 1억4천800만장(전체 인구 4천900만명)의 카드가 발급됐다. 셀러리맨들도 보통 지갑에 6~8장의 카드를 넣고 다녔다.

결과 '둘러타기'로 버려졌지만 카드 과다사용과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이라는 필연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2002년 말 신용불량자가 263만명이었으나 2003년 들어 매일 10만명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서 그해 말에는 372만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카드업계의 1위였던 LG카드는 26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나자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IMF에 이어 카드버블이라는 또다른 사태를 맞고 말았다.

최근 터키,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성장국에서 카드과다 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일면서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신용카드버블



NGO 칼럼

박종민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보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이웃과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 곳곳에서 자기 시간과 정성을 대가 없이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소식을 접하면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선의의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사회는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공동체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까?'라는 의문이 든다. 현재 광주시만

하였던 50대 후반의 주부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운영했을 때로 진심으로 기뻐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바로 보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변화와 성장의 노력을 보면서 정말 바랄 것만 자원봉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활동에 참여한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현실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하더라도 성인 인구의 20%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 실현의 지표인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요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때론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활동할 수많은 자원봉사자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자원봉사자의 성장과정을 지켜봤을 때이다. 또 이들의 힘으로 사회가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도 기쁘고 즐거웠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부터 주부봉사단의 일원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중요한 힘이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다.

자원봉사자가 '착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고 본질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자원봉사자가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제 자원봉사자의 이름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성찰적 힘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칙, 방법, 기술을 키우거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자원봉사활동이 서구처럼 자본주의적 병폐를 가리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막고, 미래사회에 희망을 주는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화훼 품종·신기술 개발 적극 지원 종자주권 지키자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이다. 지난 해에 보급된 국산 화훼품종 백마를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꽃상자를 갔다가 놀랐다. 꽃상자에서 취급하는 꽃은 거의 모두가 외국 품종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화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장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해부터 외국산 종자를 가져다 심으면 외국 기업에 종자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농촌에서 지출하는 로얄티가 160여 원이나 된다고 들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토종 국산 종자 개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장미도 국산 품종의 재배 면적은 우

리나라 전체 장미 재배 면적의 4.4%에 불과하다고 한다. 꽃을 파는 상인들은 국산 꽃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꺼리고, 농촌에서는 관로 개척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배를 회피하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해 주고, 거기에 맞는 재배기술도 제때에 지원해주기 바란다. 국산 품종의 질이 떨어진다니 선입견이 굳어지고 기술 지원이 미흡하다면 우리의 종자주권은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꽃을 재배하는 농가와 꽃집 상인들, 그리고 정부 모두 합심하여 종자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김옥임·순선시 인제동

"지하수 오염 됐다"고 속여 정수기 사기 판매

농촌에 정수기 사기 판매가 활개치고 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에 정수기 판매업자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 업자는 도시 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신문 기사를 복사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속속해서 먹는 도시 수도물도 이 정도인데 농촌에서 먹는 지하수는 훨씬 오염이 심하다고 겁을 줬다.

마을 주민들은 빨간색 매직으로 밑줄까지 그어진 수도물 바이러스 검출이라는 신문 기사를 받아 보고는 불안이 떨게 됐다. 이를 노리고 정수기 판매업자는 지하수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들이 먹으면 큰 일 난다고 겁을 줬다. 지하수를 그냥 먹으면 중

금속에 오염돼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정수기 구입하라고 꼬드겼다고 한다. 또 가뭄을 대비해 파 놓은 관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폐공 수전 등을 보여주며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꾀에 속아 마을 주민 몇 사람이 정수기를 샀고 나머지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요즘 농촌은 도청과 시·군청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정수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를 오염됐다고 속여 농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는가.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수탉의 울음소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육사 시인의 '광야' 첫 구절이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태초의 자연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한 그런 기운을 느낀다.

특히 요즘같이 인간세계가 나라, 종교, 이념으로 갈려서 아웅다웅할 때는 더욱 이 시 속의 태초의 자연 속으로 귀의하고픈 마음이 일기도 한다. 한 편의 시에서 그려지는 감동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항상 생물학의 큰 화두가 되어 왔다. 창조 상의 입장이라면 닭이 먼저 일 것이고, 유전학적 입장이라면 아마도 달걀이 먼저일 것이다. 그렇다고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이는 아직은 우리 세상에 없는 것 같다.

농경시대를 살아온 우리 수탉의 구성진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어둠이 까맣게 내려서야 일과를

마쳤다. 그래서 마을 우두머리 수탉은 동네의 자명종이자 농가의 재산목록 1호였다. 만약 수탉이 없었더라면 직장이 지각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사위가 와도 암탉은 잡아주지(물론 질기기도 했지만) 종자이자 자명종인 수탉만은 잡지 못했다. 결국 나중에 다른 수탉의 힘에 밀려 한쪽 구석지로 내쫓기거나 늪에 울 힘조차 없어지면 시에서 그려지는 감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젓소가 일년 내내 짖이 나오지 않듯 수탉 역시 일정 연령이 되어야만 울음소리가 가능하고 또 터지게 싸우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지붕 위에 올라 힘찬 '꼬꼬~ 쿵쿵' 하는 구성진 가락을 낼 수 있었다.

◇최충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